

2014학년도 4월 고3
전국연합학력평가 B형
11~16번 문법 해설

《상위 오답률 5위》

- 1위 : 23번 (52.2%)
☞ 독서(사회)
- 2위 : 29번 (50.8%)
☞ 독서(과학)
- 3위 : 14번 (49.6%)
☞ 문법
- 4위 : 38번 (48.8%)
☞ 현대소설
- 5위 : 21번 (45.8%)
☞ 독서(인문)

수능을 제외한 모든 시험은 시험을 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. 틀린 문제는 왜 틀렸고, 맞은 문제는 어떻게 맞았는지 잘 생각하며 복습해 주세요. ^^

질문있으시면 강의 게시판, 페이스북, 카페 등 모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. ^^*

11 - 표준 발음법 - 【정답 - ②】

(정답해설) '물약'은 제29항에 따라 'ㄴ첨가'가 이루어져 [물낙]으로 발음된다. 이후, [붙임1] 조항에 의해 'ㄹ' 받침 뒤에 첨가되는 'ㄴ'음을 [ㄹ]로 발음하는 조항에 따라 [물락]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한 설명이다.

(오답해설) ①의 '먹물'은 제18항에 따라 '비음화'가 이루어져 'ㄱ'이 'ㅇ'으로 바뀌어 [멍물]로 발음된다.

③ '한 입'은 제29항에 따라 'ㄴ첨가'가 이루어져 [한닙]으로 발음된다.

④ '집일'은 제29항에 따라 'ㄴ첨가'가 이루어져 [집닐]이 되고, 이후 다시 제18항에 따라 '비음화'가 이루어져 'ㅂ'이 'ㅁ'으로 바뀌어 [집닐]로 발음된다.

⑤ '색연필'은 제29항에 따라 'ㄴ첨가'가 이루어져 [색년필]이 되고, 이후 다시 제18항에 따라 [생년필]로 발음된다.

12 - 띄어쓰기 - 【정답 - ③】

(정답해설) 조사는 항상 체언 뒤에 위치한다. 체언의 앞에는 관형사(관형어, 관형절 포함)가 올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쉽게 '만큼, 대로, 뿐'을 구분할 수 있다. '못하다'는 용언이고, '못하다'는 '못'이 '하다'를 꾸미는 부사의 역할을 한다. (다)의 '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고작 그것 뿐이야?'는 '그것'이 대명사이기 때문에 '뿐'은 조사에 해당한다. 이처럼, 체언, 조사, 관형사 등의 품사 구분은 위치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.

(오답해설) ① '공부를 할 만큼 했으니 성적이 오르지?'의 '할'은 '만큼'을 꾸미는 용언의 관형사형에 해당하므로 '만큼'이 의존 명사임을 알 수 있다. 그러므로, 띄어쓰는 것은 적절하다.

② '나는 나대로 열심히 공부했어.'의 '나'는 체언이다. 그러므로, '대로'는 조사에 해당하여 붙여쓰는 것이 적절하다.

④ '배가 고프다 못해 아프다.'의 '못해'는 형용사로, '정도가 극에 달한 나머지'를 뜻하므로 붙여쓰는 것이 적절하다.

⑤ '실력이 예전보다 많이 못하구나.'의 '못하구나'는 형용사로, '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함'을 뜻하므로 붙여쓰는 것이 적절하다.

13 -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- 【정답 - ④】

(정답해설) '주호는 나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.'라는 문장은 '주호가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보다 책을 더 좋아하는 것인지', '주호가 나랑 책 중에서 책을 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인지'가 명확하지 않은 문장이다. 그러나, '주호는 책을 나보다 더 좋아한다.'로 문장 순서를 바뀌어도 의미의 모호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고친 문장에 해당하지 않는다.

(오답해설) ① '그는 슈퍼맨이라 불리우는 사람이다'의 '불리우는'은 '불(다) + -리- + -우- + -는'으로 형태소가 분석할 수 있고, 이 중 '-리-'라는 피동 접사와 '-우-'라는 사동 접사가 같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. 이 때, 굳이 '사동 접사'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'-우-'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.

② '손님, 저쪽 방으로 들어가실게요.'는 화자의 약속, 의지를 나타내지도 않는 상황에서 '-르

개요'를 사용하고 있어 잘못된 표현임을 알 수 있다. 그러므로, '손님, 저쪽 방으로 들어가세요.'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.

③ '그는 설레임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.'의 '설레임'은 잘못된 명사형 표현이다. 명사형 어미에는 '-(으)ㄴ / 기'로 주로 실현되므로, 이 예엔 해당하지 않는다.

⑤ '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올해 신상품이세요.'는 간접 높임을 쓰려고 한 의도로 볼 수 있다. 간접 높임은 높히려는 대상의 신체나 소지품, 생각 등도 높임이 가능한 표현인데, 이 문장에서는 '높히려는 대상(청자)'의 소지품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높여서 부를 필요가 없다.

14 - 사전 활용하기 - 【정답 - ㉔】

(정답해설) ㉔의 '개구리가'는 서술어 '되었다'의 앞에 놓였기 때문에 '보어'에 해당한다. 이때 '되었다'의 주체는 '올챙이'이므로, '올챙이가'가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다. 그러므로, 조사 '가'의 [1]㉔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, '올챙이가 개구리로 되었다'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낸다.

(오답해설) ㉑ '가'와 '이'는 음운론적 이형태 관계이고, 이것은 ㉓의 '올챙이가'의 '이' 모음 뒤에서 '가'로 실현한 것과 ㉔의 '뽕밭이'의 '밭' -종성이 자음 'ㅌ' - 자음 뒤에서 '이'로 실현한 것으로 알 수 있다.

③ ㉔의 '깨끗하지가'는 '깨끗하지를'로 바꿔 쓰는 것이 가능하다. 또, 뒤에 부정적 표현인 '않다'가 왔으므로, 가[2]에 관한 적절한 설명이 된다.

④ ㉔의 '뽕밭이'는 서술어가 '되었다'이므로 보어에 해당한다. 의미상으로는 '뽕밭으로'의 부사의 의미를 갖고, 바뀌게 쓰는 대상을 나타내므로, 이[1]㉔에 해당한다.

⑤ ㉔의 '백두산이'는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[2]에 해당한다.

15 - 문법 범주 - 【정답 - ㉕】

(정답해설) ㉔의 '-기-'는 행위 주체인 '도둑'이 경찰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피동접미사이다.

(오답해설) ㉑ ㉑과 ㉒은 모두 주어인 '할머니'와 '아버지'를 높이기 위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'-시-'로 쓰였다.

② ㉑의 '-ㄴ-'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이고, ㉔의 '-었-'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.

③ ㉔의 '-리-'는 '아버지께서 연을 날게하다'를 의미하므로, '아버지가 다른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도약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사동접미사로 쓰였다.

④ ㉔의 '-겠-'은 보통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로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지만, 이 문장에서는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 쓰였다.

16 - 중세 국어의 특징 - 【정답 - ㉔】

(정답해설) ㉔은 중세 국어의 거듭적기 표기법을 언급하고 있다. 거듭적기는 이어적기와 끊어적기의 사이에 발생하여 향유되었던 표기법인데 예를 들어, ‘말씀 + 이’가 기본형인 경우 ‘말씀미’로 그대로 이어적는 것을 말하며 ‘말씀이’ 그대로 형태소를 밝혀 적으면 기본형으로 볼 수 있다. ‘말씀미’로 적을 경우 거듭적기의 예에 해당하게 된다.

(오답해설) ① ‘ㆍ’는 현재 쓰이지 않고, 과거에만 쓰였기 때문에 적절한 설명이다. ‘△’ 역시 과거에만 쓰였고, 이후 ‘ㅅ’로 다시 바뀌게 되었다.

② ‘선어말 어미’ ‘-이-’는 상대높임 선어말 어미이기 때문에 적절한 예에 해당한다.

③ 조사 ‘하’는 대상을 높이는 극존칭의 호격 조사로, ‘님금’을 꾸밈기 때문에 적절한 예에 해당한다.

④ 중세 국어의 부사격 조사는 상황에 따라 출현양상이 달랐다. ‘애, 이, 예’로 3가지로 나뉘었는데, ‘애’는 양성모음 아래에서, ‘에’는 음성모음 아래에서, ‘예’는 ‘ㅣ’모음 아래에서 사용되었다. 그러므로, ‘낙수’에 ‘예’가 쓰인 것은 ‘낙수’가 당시 [낙쉬]와 같이 발음되었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로 ‘예’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.